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7월 5일(금)

(음력 6월 3일)

Пятница

5 июля 2019г.

№ 26(11684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경인여자대학교 해외봉사팀 활동에 따른 학생발표회를 열었다.

(관련 기사 8면)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청소년 민속스포츠대회 개최

티몹스코예구역 치르-운드브드 촌에서 7월 3일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청소년 민속스포츠대회가 열렸다. 이에 오하, 노글리키, 티몹스코예, 스미르니흐 및 포로나이스크 구역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대표하는 북방 소수민족 청소년 6개팀(자격: 10-17세의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다.

경쟁 종목은 화살 쏘기, 도끼 던지기, 민속레슬링, 장대 갖고 산길 달리기, 썰매로 건너뛰기 등 경기에서 승부를 다툰다.

그외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활동교실도 펼쳐지는 가운데 대회는 3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정전이 있는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 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용기를 내주신 두 분 정상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평화로 가는 방법을 한반도가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마음이 벅칩니다."

6월 30일 한국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다.

6월 28일-29일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순방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DMZ 구역(비무장지대)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DMZ구역 방문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벼운 인사와 악수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글로 올렸다. 냉각된 북미관계에서는 다만 희망에 가까운 글이었다.

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와 북한의 신속한 응답으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과 함께 DMZ 구역 방문 후, 오후 4시가 넘어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반가이 악수를 하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구!"라고 불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악수를 나누고 "각하께서 군사분계선을 한 발자국 넘으시면 사상

처음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라고 말했다.



▲ 남북미 정상 회동. (연합뉴스)

이날 북미 상봉에 문 대통령은 뒤쪽에 머물며 중재자로서 북미 정상간의 만남을 지켜보았다. 이후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앞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당황스런 장면들이 기자들의 사진에 담겼다. 이후 북미 정상은 남측 자유의 집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2-5분을 예측했던 만남이 53분간의 단독회담으로 이어졌다. 양 정상은 비핵화 협상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 밖으로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도 밝아졌다.

회담 후, 양국은 2-3주 내로 북미간 실무자 협의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는 때로 대담함과 독창성으로 진보한다. 이번 남-북-미 3자 정상간 만남은 세 정상의 기발함, 대범함과 기존의 형식을 깬 독창성으로 한반도와 세계 역사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뉴스 종합)

사할린 주지사 후보 8명 등록

7월 1일 사할린주 선거위원회에 사할린 주지사 후보 등록 서류 접수가 마무리되었다. 후보명단에는 8명이 올랐다.

당소속은 5 명이다.

- 알렉산드르 아니스트라토브 - <스프라웨드리와야 러시아>정의당 사할린지부.
- 드미트리 젠킨 - <컴뮤니스트 러시아>공산당 소속.
- 알렉세이 코르니엔코 - 러시아 연방 공산당 소속.
- 드미트리 코체르긴 - 사회정의 공산당 소속.
- 드미트리 플레예르 - 러시아 자유민주당 사할린지부.

무소속으로 자신 출마하는 후보는 3명 - 왈레리 리마렌코 현 주지사 대행, 스웨틀라나 이와노와 사할린주두마 의원(러시아 연방 공산당 소속)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예카제리나 툴마초와-이다.

각 후보들은 지방자치의회(18개중 14개)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구하는 30표를 얻어야 한다.

무소속 후보들의 의원들은 이외에도 선거 유권자로부터 2000표를 얻어야 다음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모든 지지표 서류는 7월 12일까지 주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주 선거위원회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공식 후보자 등록을 결정한다.

사할린 주지사 선거일은 올 9월 8일이다.

사할린주, 사업 허가증, 자격증 발행 시간 단축

지난 2일(화)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섬지역 기업인들과 만났다. 투자유치사업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이들 중에는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기업의 지도자들과 개인 사업가들이 있었다.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러시아 연방의 여러 지역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사할린주에 투자 유치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즈니스는 사업전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곳으로 간다. 우리의 조건이 다른 데보다 안 좋다면 새로운 창업, 일자리 창출, 세금 부과 등,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질적 생활 향상은 다른 지역, 다른 주에서 펼쳐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할린주 정부 키릴 포드베료즈니 부수상은 투자환경 개선사업은 다방면으로 진행될 것이라 언급하고 허가증 및 인가 발행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가와 정부 간 문제점과 지원 요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터넷 기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산업제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두 개의 산업 단지를 건설 할 계획이며 무역과 수출 평가하는 <전략적 시행처>를 통해 사업자들과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9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문화생활

서울국제도서전 관람객들의 마음을 흔든 사할린 시인 허로만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다.

서울국제도서전은 한국 최대의 책 축제다. 이 도서전은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사이다. 1954년에 서울 도서전을 개최한 이래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도서전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2008년부터는 주변국을 지정하여 주변국의 도서작품들을 특별 전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은 책과 저작권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재미를 더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또한 독자, 작가, 출판인, 그리고 창작자와 사업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까닭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문화의 든든한 토대 역할을 하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도서전의 홍보대사로는 100세 철학자 김형석,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작가 한강, 그리고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모델 한현민이 함께 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는 ‘출현(Arrival)’ 이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국제도서전에 러시아도 참가해 여러 책들을 소개했다. 올해는 한국 내 312개 출판사와 주변국 헝가리를 비롯해 주목받는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온 작가와 출판인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41개국의 117개 출판사가 참여

했다.

러시아는 이번 서울도서전에 650종의 서적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기념일을 맞이하는 알렉산드르 푸쉬킨, 니콜라이 고골리, 안나 아흐마토히와 다니일 그라닌, 러시아 명작 소설가와 시인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그외 러시아 부스에는 소설책, 교재와 동화문학, 우수 한국문학 작품들의 러시아어본,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 관한 책이 많았다.

한국 독자와 만남을 갖기 위해 러시아에서 알리사 가니예바, 알렉산드르 아르한겔스키와 세르게이 샤르구노브 유명 작가, 사할린에서는 음유시인·시인·작가 허 로만, <루베즈>태평양출판사 알렉산드르 콜레소브 사장,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 번역과 예카제리나 포홀코와 학장 등이 서울을 찾았다. 이들 모두가 공동 일정 외에는 각자 도서전 행사와 관련해 개인 일정을 가졌다. 작가이자 문학 평론가인 알리사 가니예바(1985년생)가 집필한 동화책은 수 개국 언어로 번역돼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가니예바 작가는 한국 독자와 만나 한국어로 번역된 자신의 <상처 받은 영혼들>소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러시아 문학인 중 러시아 대도시가 아닌 지방 출신으로는 허로만 시인이 유일했다고 본다.

얼마 전에 필자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다녀온 허 로만(69세, 허남영) 러시아작가동맹원과 만나 도서전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알아보았다.

그는 처음 한국으로 1995년에 방문했다. 그때 광복절 50주



년 행사에 초대받았다고 한다. 그 후로 24년이 지나서야 다시 한 번 부모의 나라를 찾게 되었다.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던 조국 방문이었다면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달랐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시인, 음유시인, 번역원으로서 도서전에서 주목받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허 시인은 19일 도서전이 열리는 코엑스 전시관에서 <허로만의 높은 음표>란 창작의 밤을 가졌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통역자가 계셨는데 제가 통역할 필요없이 직접 한국말로 하고 관객들에게 자신의 문학을 소개했죠."라고 허로만 선생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에 대한 시를 두 개의 언어(한국어



와 러시아어)로 직접 기타를 치면서 낭송했다. 관객들은 부모가 사할린에서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사할린에 버려진 것을 알게 된 한국의 자식이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포 음유시인은 작사·작곡한 <소원>으로 공연을 시작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았다.

‘햇살이 되어
햇살이 되어
아버님의 유년시절이
흐르던 마당에서
마음껏 희롱해봤으면!’

가족 이야기를 통한 사할린 한인역사 외에도 허 시인은 러시아의 시인 예세닌의 시와 한국의 김소월 시인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시조도 낭송했다.

허 로만 선생은 만족스러워했다. 또 하나의 북콘서트가 6월 21일 푸쉬킨 하우스 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푸쉬킨 하우스 관계자는 "북콘서트는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한국으

로 돌아올 수 없었던 부모님 세대의 아픔과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따뜻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타 연주와 노래로 북콘서트 분위기는 너무 훈훈했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린 문학의 밤 행사에는 학생들이 많이 찾았고, 푸쉬킨 하우스 공연은 주로 러시아어와 문학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찾았다. 이들은 특히 허 로만 시인의 조선 시조 러시아어 번역본에 큰 관심을 가졌고 전문가들은 허 로만의 번역작업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허 시인은 이번 도서전 참가가 자신에게 영감과 에너지를 충전해 주었다고 고백했다. 한국에서 여러 기획제안을 받았지만 사할린 시인은 검토 중이라며 실행하게 되면 소식을 알려겠다고 했다.

내년 2020년 서울국제도서전 주변국으로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다.

(배순신 기자)
(안 일로나 촬영)

이 모 저 모

<딸들-어머니들>인형전시회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

7월 8일 17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프로스펙트 포베디 24번지에서 <딸들-어머니들> 독창적인 인형 전시회가 열린다. 여기에 사할린 6개 지역에서 참가한 11명의 장인들이 다양한 재료와 유형별로 만든 인형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전시한다. 전통의상 인형, 장난감 인형, 인테리어 인형, 뜨개 인형, 구체관절 인형(관절 부위가 자유로이 움직이는 인형), 폴리점토 인형, 파피에마셰(종이와 전분, 식고를 섞어 만든 점토로 만든 인형) 등이 전시된다고 주 민속창작센터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выставку кукол "Дочки-матери"

8 июля в 17:00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Победы, 24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уник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кукол "Дочки-матери", в которо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1 мастеров из 6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д посетителями предстанут экспонаты, выполненные в различных материалах и стилев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традиционные обрядовые куклы, игровые, интерьерные, вязанные, шарнирные, куклы из пластика и полимерной глины, а также папье-маше,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유모차 행진 개최

7월 8일 사랑·가족·신뢰의 날, 공식 기념일을 즈음하여 7월 7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은 '가정의 날'을 개최한다. 행사 당일에 방문객들과 참가자들을 위해 활동교실, 전시 및 판매, 아동과 성인을 위한 놀이 경연이 펼쳐진다.

가족을 위한 창의적 경연으로 <유모차 행진>이 주요 행사가 된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승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상품)을 수여한다. 관람객들은 이날을 즐겁게 보내며 휴식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019 신기한 유모차>가족 창작 경연에 창의적인 부모님들의 참가를 기대한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оведет парад колясок

7 ию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ойдет День семьи, приуроченный ко Дню любви, семьи и верности, который официально отмечается 8 июля.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выставка-продажа, конкурсno-иг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детей и родителей.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нет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для семей "Парад колясок".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т дипломы, а победители —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и призы. А благодарные зрители могут отлично провести день, отдохнуть и получи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заряд эмоций.

Креативных родителей приглашают для участия в творческом семейном конкурсе "Чудомобиль-2019", сообщает музей.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야쿠츠크에서 <먼 바다에 물고기들의 섬>전람회 개최

유엔이 정한 '원주민 언어의 해'의 일환으로 6월 27-29일 야쿠츠크에서 <극지의 지속적인 발전 요인으로서 북극 원주민들의 언어>국제실용과학 학술대회가 조성되었다.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은 <먼 바다에 물고기들의 섬>이동 전람회를 연 가운데 사할린의 명인들 - 엘.키모와, 웨.오시포와, 에프.피군, 아.도로페예와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들의 작품

들은 훌륭하게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유일무이한 예술성을 보여주었다.

사할린 명인들의 작품들은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지역예술기획과를 지휘하는 엘레나 니트쿠크가 발표한 <현대 예술체계에서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민속 수공업> 논문의 생생한 보충자료가 되어주었다. 학술대회에는 러시아, 대한민국,일본, 독일, 핀란드,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학술회의 중에서는 원주민들의 지속적인 발전 전망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극동 및 시베리아, 북방, 극지에 원주민들의 언어적 다양성의 발전과 보존 가능성,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학술대회의 결과물로 전자 평론집집을 출판할 계획이라고 미술박물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представил выставку "Остров рыбы в дальнем море" в Якутске

27-29 июня в рамках Года языков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объявленного ООН, в Якутске состоя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Язык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как фактор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ки".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представил передвижную выставку "Остров рыбы в дальнем море". Экспонировались предметы извест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мастеров, таких как Л. Кимова, В. Осипова, Ф. Мыгун, А. Дорофеева и др. Во всей красоте он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еповторимое искусство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мастеров стали наглядным дополнением к докладу "Народные ремесл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в систем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Елены Ниткук, заведующей отделом региональ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우수상

사람마다 가슴 속에 섬세한 자기 민족의 초상화가 들어 있다

이 잔나

(전호의 계속)

1990년에 아버지의 가족은 하바로프스크로 이주했습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하바로프스크 <뽀리테크니체스키이 리제이> 중학교에서 아버지는 조각과 미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며, 시 및 변경 주최의 회화와 조각 경연대회에도 참가하셨습니다. 또한 야쿠치야 공화국 공훈 배우 폴라 벨드 동상 설계 콩쿠르에 참가하여 명예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2008년 5월에 아버지는 75회 생신과 교육활동기념 5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학교의 동료들, 학생들, 아버지의 재능을 존경



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학교 동료들은 아버지를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불렀으며 큰 글자를 가진 교원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원들에게서 존경과 신임을 받은 아버지는 자신이 가르치시는 과목을 큰 사랑과 예술적 기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학생들은 시내 공물과 축제에 참가했으며, 한국 경기도 평택시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 참가로 학생들의 그림을 보내서 금, 은, 동의 상들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학생들이 건축예술 부분의 콩쿠르에서 금(금) 메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아주 큰 긍지를 느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수채화와 유화 외에 조각예술을 가르치시며 시, 구역, 빙상 공물에도 학생들과 여러 번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채화 그림들은 하바로프스크 극동 미술박물관, 변경 예술 창작 연합회 문화(文化)회관에 전시되었습니다. 광복절에 즈음하여 ‘러시아-한국(韓國)’, ‘러시아-조선(朝鮮)’ 합작 그림 전시회에도 참가하셨습니다.

다년간 성실한 노동으로 변경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하바로프스크 변경 교육과 문화청, 전 러시아 한인 연합회로부터 러시아 고려인 사이에서 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개인적으로 기여를 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숙련된 솜씨, 실력, 재능, 큰 생활적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바로프스크 변경 교원들의 자격과, 대학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들의 요청에 공개 미술시간을 열어 높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작품 중 70점 이상의 그림들이 있으며 다수는 사할린섬과 하바로프스크의 자연을 그린 풍경화입니다. 또한 최 빅토르(Виктор Цой) 고려인 가수의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화가로서 사할린의 자연 경치는 아버지에게 창조력을 주었으며, 특히 사실적 풍경화에서 큰 창조적 영감을 얻고, 산속과 바닷가에서 여러 시간 그림을 그려도 창조적 영감은 떠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러시아미술협회의 회원인 포민 블라지



미르는 (В.Фомин): "이 블라지미르 선생님의 그림들은 러시아 전통 회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렸지만, 동양민족의 색채가 짙게 나타나며, 그의 그림들은 서정적이며, 밝으며, 농염하며 시각적으로도 직접적인 차이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에게는 자연의 사계절이 모두 매력적이며 진실한 화가는 자기가 보는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각하는 것을 그린다 고 합니다.

2013년 12월 16일에 저의 부모님은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으로

영주 귀국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조부님의 나라에 와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시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2015년도에 한국예술인 봉사재단에서 미술 재료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파주 미술협회에서 지원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파주시 미술협회 회원이 된 후에 미술협회의 도움을 받아 작품활동에 매진하시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하바로프스크 마지막 항해" 작품을 비롯해 "평화의 다리", "조리골 카페", "운정 호수공원", "포천 허브 아일랜드" 등 작품 12점을 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5월 4일에 86회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훌륭하신 아버님의 자랑스런 딸로서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이잔나 드림**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여름 낙조 / 송수권

왜 채석강변에 사는지 묻지 말아라

나는 지금 만 권의 책을 쌓아 놓고 글을 읽는다

만권의 책, 파도가 와서 맑고 맑는 절벽의 단애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다

나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사지 못할 만 권의 책

오늘은 내가 쓴 초라한 저서 몇 권을 불지르고

이 한바다에 재를 날린다

커커이 쌓은 책 속에 무일푼 좀벌레처럼 세들어 간다

왜 채석강변에 사느냐 묻지 말아라

고토에 찬 나의 신음 하늘에 닿았다 한들

끼룩끼룩 울며 서해를 날으는 저 변산 갈매기만큼이야 하겠느냐

물 켜 다음 저 뽕밭에 피는 물잎새들만큼이야 자옥하겠느냐

그대여, 서해에 와서 저는 낙조를 보고 울기 전엔

왜 나 채석강변에 사는지 묻지 말아라.

"여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서울은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돌립니다. 수박을 잘라 어떻게 이 큰 덩어리를 냉장고에 넣을지 걱정하는 계절.

어쩐지 삼척 같은 동해 바다 어디쯤에서 한참을 헤엄쳐야만 직성이 풀릴 것만 같은 계절. 모기때보다 모기향을 더 많이 흡입하면서도 텐트를 손질하는 계절입니다. 송수권 시인은 낚시광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 도대체 어떻게 그걸 또 죄다 손질했을까요. 서해안 채석강변에 마련했다던 집필실 생활은 또 어떻고. 어쩐지 팔짱을 낀 채 낙조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을 시인의 그 날 그 곳이 궁금해지는 여름의 초입입니다. 낙조가 슬픈 이유는 언제나 아쉽지만 한 이 하루가, 바로 우리의 생(生)이 허무하게 지나가기 때문이 아닐런지.

아, 그런데 왜 저는 '낙조'를 떠올리면 '산낙지'가 떠오를까요. 산낙지에 초고추장에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쫄쫄, 전주 이강주까지 곁들이면, 저도 식기가 줄줄이 떠오를 것만 같은데, 아, 아닌가요. 정서는 메말라 가고, 식욕은 늘어만 가고,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2019.06.26.



CIS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개최

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30명 참가
5주간 한국외대서 한국어 수업 및 역사·문화 체험
한국어 향상 및 교육자로서 역량강화 도모

CIS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교육 역량



과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30여명 의 고려인 동포 한글학교 교사, 현지 학교 한국어 강사 등이 참가한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분반 수업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교수법을 배우며, 사물놀이, 한식 체험 등 전통문화 탐방과 현장 답사를 통한 역사문화 교육에 참여한다.

- 경복궁, 수원 화성, 통일 전망대 견학과 서울·제주도 탐방 실시

한우성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러시아·CIS지역 고려인동포사회의 한국어교육 기반을 다지고, 차세대 고려인 동포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고려인 사회 세대교체에 따른 정체성 단절을 극복하고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оман Хе представил Россию на книжной ярмарке в Сеуле

С 19 по 23 июня в столичн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КОЭКС прошла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нижная ярмарка. Проводится она ежегодно и стала уже 25-й по счёт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ней впервы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Российский книжный союз.

В этом году россияне представили публике 650 наименований книг. Среди них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классиков, чьи юбилеи отмечаются в текущем году: Александра Пушкина, Николая Гоголя, Анны Ахматовой и Даниила Гранина. Специальный раздел был посвящен книгам об исследованиях космоса. Жителям города показали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и дет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переводы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книги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 также произ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переведённые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реди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из России были: писательница Алиса Ганиева, которая провела две презентации своего романа «Оскорблённые чувства», переведенного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телеведущий Александр Архангельский, писатель Сергей Шаргунов и сахалинский поэт Роман Хе.



Российский книжный союз устроил два авторских вечера-концерта Романа Хе. Первый прошёл 19 июня в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COEX, второй – в Пушкинском Доме.

Вернувшись на Сахалин,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Роман Хе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поездки в Сеул.

Первый раз писатель побывал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1995 году, и вот, спустя 24 года, он вернулся вновь, но уже со своей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Роман - поэт, который пишет на двух языках: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Хотя на творческой встрече-концерте в Сеуле был переводчик, Роман сам на корейском от начала до конца вел свою программу.

«У меня было ощущение, что я не в Корее побывал, а в России. В глазах зрителей была такая ж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эмоции и добродушный приём», - поделился сахалинский поэт.

Эта была для него запоминающаяся поездка, ведь он выступал неподалеку от тех мест, где родилась и жила его мама. Своё выступление Роман Хе начал с рассказов о родителях и со свое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Желание (Солнечный зайчик)», которое, судя по реакции зрителей, понравилось и запомнилось публике. Особенность выступления поэт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он переложил свои стихи на музыку и исполняет их под гитару. Они были исполнены на двух языках: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Роман представил на суд зрителей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з своего последнего двухтомника избра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Первый том «Нота ля» состоит из стихов и рассказов Романа, во второй том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ветлая ночь» вошли его переводы сиджо.

Особым стало для него выступление и в Пушкинском Доме, где он нашел немало своих поклонников.

Зрител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лингвистов, оценили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перевода сахалинским поэтом корейских трехстиший сидж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оэт отметил, что если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новь побывать на подоб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то обязательно воспользуется этим.

Александра Федосова.

Фото: Илона Ан.

Из буклета, подготовл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им книжным Союзом

РОМАН ХЕ. Корейский русский поэт. Родился 18 сентября 194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в обычной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По паспорту Роман - Хо Нам-Еги.

В 1965 году окончил восьмилетнюю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работал плотником, каменщиком-формовщиком, музыкантом. Литератур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ман Хе начал с раннего девяти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Правда до 25 лет писал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го творчество стало мостом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Его двуязычность – для него равно родные и корей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 дала совершенно неожиданный эффект: его собственные стихи существуют на двух языках, и это не переводы, пусть бы и авторские – это равноправные проявления одного текста. Его музыка к своим стихам (и не только к своим) – пронизана русской мелодико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 вибрацией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песен. Свободный переход с одного языка на другой позволили ему сделать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е переводы древнекорейских поэтов, переводить современных поэтов так, что они совершенно органично звуча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Его творчество оценено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 имя его известно и на «востоке» - в Японии, Корее, Китае, и на «западе» - в США, Израиле, Франции...

Конкурс эссе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зер конкурса (лауреат премии 3-ей степени)

Поездка в Корею

Пак Александр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номере № 25)

Полет.

Перед взлетом Саша с сестрой расположились, как указывали билеты, почти в самом конце самолета. Конечно, он упросил сестру поменяться с ним местами и весь полет мог наслаждаться видами из иллюминатора. Самолет начал ускоряться и постепенно, как бы нехотя, отрываться от земли. В это время Саша почувствовал, как тепло, концентрируясь в одном точке, начало подниматься вверх и постепенно заполнять его. То были приятные мгнове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человеческой природой. Не прошло и двадцати минут как Саше и его сестре стало плохо; головокружение, небольшая тошнота и какая-то необъяснимая апатия навалились на пассажиров, то было их первое знакомство с летной болезнью.

«Настя, а Настя, мне плохо.... Голова болит.» - Но ответа не последовало, ибо его сестре уже надоело постоянно отвечать на жалобы маленького братика. Ей казалось, что Саша говорит чересчур громко и ему следовало бы немного успокоиться. Вдруг Саша вспоминает, что в его небольшом рюкзаке есть игральные карты. Они немного старые и опытный любитель уже заметил бы, что Саша чрезвычайно любит играть в «Дурака» вместе с друзьями в подъезде их белого дома. Насте, как и Саше, также скучно и потому соглашается поиграть с ним. В прочем, их энтузиазма хватило ненадолго, ибо сознание уже совсем отказывает им, ощущение тошноты никак не покидает их:

«Тебе тоже плохо? Надо было запастись леденцами перед полетом, как советовала мама.

- Какими леденцами?

- Самыми обыкновенными. Говорят, что помогают.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когда будем возвращаться домой, напомни мне купить их. Хорошо?

- Да, Настя. Как же мне плохо... И из окна совсем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облака только. Мне скучно, Настя.

- Прекрати и хватит ныть. Ты ведь мужчина, не так ли?

- Как что, так мужчина! Опять ты за своё! Какая же ты зануда!

- Тише, все тебя услышали, страдалец...»

И так проходило время, секунды казались минутами, а минуты часами. Но, вдруг, капитан самолета что-то говорит на корейском, затем, повторяет свою речь на английском. Саша старательно пытается перевести то, что говорит капитан, но ему не совсем удается, но это не важно, ибо вскоре к ним подъезжает тележка и красивая, как ему показалось, стюардесса предлагает обед. Моему сознанию и не вспомнить почему, страдая летной болезнью, мы все же согласились пообедать. Возможно, потому, что не было сил отказать столь приветливой стюардессе или сказилось моё любопытство.

Еда разложена на раскладных столиках, но Саша не знает с чего начать. Все выглядит необычным и очень вкусным,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его ужасает количество этой еды.

На время прерываю свой рассказ, ибо моему сознанию захотелось поведать читателю о том, что население Кореи умудряется кушать очень много и постоянно. Во многих ресторанах можно было заплати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умму денег и набрать себе на разнос столько еды, сколько ты посчитаешь нужным. В то же время существует негласное правило, которое гласит, что клиент, воспользовав-

шийся такой услугой, обязан съесть все то, что он набрал.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его ждал довольно внушительный штраф....

И тут мне вспоминается забавная история. Как-то раз, прогуливаясь по Ансану с женщиной - знакомой моей бабушки, мы заглянули в одно из таких кафе. Необходимо поведать, что тетя, как и я, в Корее была впервые, потому ей было все ново и интересно. Усадив меня за столик, она ушла заказывать нечто необычное и вкусное. В данном ресторане также действовала рассказанная мною система, поэтому тетенька, узнав о ней, решила тотчас ж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ю. И тут моему все еще детскому взору предстала занимательная картина: тетя Мён Хи с большим разносом подходит к огромным чанам с разными блюдами. Выбор такой большой, что глаза разбегаются и никак не может она выбрать что-либо подходящее данному случаю. Так ходит она между этими чанами, возьмет себе что-нибудь и, заметив еще что-то необычное, также кладет себе на украшенный привычным корейским натюрмортом разнос. Наблюдать за неловкими движениями моей тети было сплошной отрадой для меня. Наконец, тетя возвращается, неся с собой разнос, заполненный самой различной едой.

- Тетя, а зачем нам так много???

- Ешь, Саша, ешь. Я обещала Сун Ок - твоей бабушке, хорошо покормить тебя сегодня. Я выбрал себе привычное мне корейское «райскари», хотя, оно или она, имело некий специфический вкус. Возможно, все дело было в приправе, которая отличалась от той, что использовала моя мама.

Мы уже заканчивали есть, но казалось,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еды на разносе нисколько не уменьшилось. Остальные посетители с неодобрением смотрели на нас. Причина недовольства очень скоро стала понятна и моей спутнице. Оказалось, что мы не заметили табличку, где было написано о том самом правиле, которое требовало съесть всю заказанную еду, а у моей тети не было с собой достаточно денег, чтобы оплатить штраф. Мы попали в печ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В то время я был слишком мал и не знал причину нашей столь долгой задержки, и только теперь понимаю, как неловко было моей тете оканчиваться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Тогда же мне казалось очень забавным наблюдать, как тетя почему-то усиленно кушает разные блюда. Тетя ела долго, необычайно долго. Постепенно, еда на разносе уменьшилась вдовину, а имо (тетя) Мён Хи все ела и ела. Я уже вижу, что ей плохо и лицо начинало принимать бледновато-зеленый оттенок. С каким необычайным трудом тете давался каждый кусочек пищи!

Но, что оставалось ей делать? Проходит еще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я продолжаю наблюдать за ней со странным чувством. Вскоре Мён Хи совсем устала... Посетители с непониманием и некоторым любопытством смотрят на странную пару, расположившуюся неподалеку от окна, где росло дерево, лепестки которого были необыкновенно зелеными. Под тенью дерева расположилась продавщица мороженого, громко кричавшая: «Айс крим! Айс крим!». Тогда у меня и возникло ощущение, будто произойдет что-то необычное. К нам подошел хозяин данного заведения. От неожиданности тетя Мён Хи растерялась, а её замешательство передалось и мне.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России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возобновл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диалог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ночь на 29 июня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в японском городе Осака,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России Мун Чжэ Ин 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констатировали, что мирный процесс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ступил в решающую стадию.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оделились оценкам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елился со сво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ой результатами недав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с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Ёном, а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звал их «конструктивными». Мун Чжэ Ин напомнил, что в 2020 году РК и Россия будут отмечать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ходе встречи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две страны поставили цель увеличить в 2020 году объём товарооборота до 3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30 июня встречи в Сеуле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Мун Чжэ И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обсудили пути достижени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мира в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укреп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альянса. Во встрече,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течение полутора часов,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о Ён Мин,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ан Гён Хв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Чон Ёй Ён и посол РК в США Чо Юн Чжэ. Американскую сторону представляли госсекретарь Майкл Помпео,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жон Болтон, посол США в РК Гарри Харрис 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ы аппарата Белого дома Мик Малвани. Затем состоялся саммит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во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ого обеда,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 десять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еих стран.

В Сеуле выразили протест против ужесточения Японией условий экспорта в РК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сырь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МИД РК Чо Сэ Ён вызвал посла Японии Ясумасу Нагамину, выразив протест и сожале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мер Токио по ужесточению контроля за экспортом важнейши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РК. На этот шаг, как сообщалось ранее, Япония пошла в ответ на то, что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бязал японские компании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мевшей место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протектората над Кореей.

Ране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экономики,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Японии объявили об ужесточении процедуры экспорта в РК трёх наименований материал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смартфонов и телевизоров. Ситуация осложняется тем, что на Японию приходится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всего мирового объёма производства да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 две премии на XVI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имени П. И. Чайковского

Молод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узыканты завоевали две медали на XVI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имени П. И. Чайковского, завершившемся 27 июня в России. В номинации «сольное пение» среди мужчин второй премии и серебряной медали удостоен 26-летний баритон Ким Ги Хун. Первая премия у Александроса Ставракакиса из Греции, третья – у Миграна Агаджяна из России. Награды вручали в Мариинском театре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30-летний Ким Дон Хён удостоен третьей премии и бронзовой медали на конкурсе скрипачей. Первую премию получил Сергей Догадин из России, вторую - бельгиец Марк Бушков.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состоялась в Москве,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имени Чайковского.

В Пучхоне откры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27 июня в городе Пу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рылся XXI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BIFAN),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по 7 июля.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1997 года,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в Пучхоне центра низкобюджетных и независимых фильмов. На этот раз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тема которого Science Fiction, будут показаны 284 фильма из 49 стран. По случаю 100-лети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покажут 13 отечественных жанровых картин. Кроме того, подготовлен специальный показ фильмов о роботах разных эпох.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было подано 1.226 заявок, из которых отобраны 35 фильмов. На этот раз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технологиям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RKI)

ВСТРЕЧА НА ТРОИХ

Трамп стал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посетившим КНДР

В воскресенье, 30 июня,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разделяющей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произошла историческая встреча, в ходе которой состоялся трехсторонний саммит с участием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Ким Чен Ёна и Мун Чжэ Ина. Лидеры КНДР и США провели также переговоры с глазу на глаза. Они общались в течение примерно 40 минут.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это придаст новый импульс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диалогу и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Трамп и Ким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встретятся снова, чтобы провести уже полноценные переговоры.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Дональд Трамп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а, с которым он уже успел накануне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и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прибыл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ую зону в местечке Пханмунчжом. Примерно в 14 часов 50 минут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8.50 утра по Москве) истори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Сначала Трамп и Ким Чен Ён встретили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линии разграничения. Трамп подошел первым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сле чего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а прибыл Ким Чен Ён. Они обменялись рукопожатиями, парой фраз, после чего Трамп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Кима перешел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Они отошли метров на 20 в глубь КНДР, там постояли, попозировали для фотографов, а затем вместе перешли уже на южно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Там прошла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а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где Трамп и Ким сказали пару слов о том, как продвинулись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Ким Чен

Ён показал, что тоже склонен к игре на публику и красивым фразам, отметив, что "рукопожатие мира произошло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который был всегда символом раскола".

Затем к паре подошел уж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что превратило саммит в трехсторонни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все трое проследовали в "Дом свободы",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части Пханмунчжома. Мун Чжэ Ин деликатно оставил Трампа и Кима общаться вдвоем. Пара продолжила разговор в присутствии журналистов. Дале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знал, что предложение Трампа встретиться, о котором он узнал только вчера, застигло его врасплох, но он решил его принять.

После этого Дональд Трамп и Ким Чен Ён продолжили общение в специальном зале. Во время этой беседы с лидерам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только переводчики. Поз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Дональд Трамп пригласил Ким Чен Ёна посетить Вашингтон, но об ответной реакции Кима ничего сказано не был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жидалось, что Трамп и Ким завершат общение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в течение 10-15 минут, но в итоге лидеры США и КНДР проговорили с глазу на глаз около 40 минут. Затем Трамп и Ким, улыбаясь, вышли из зала переговоров, к ним подошел Мун Чжэ Ин. Трамп и Мун довели Кима до границы, попрощались и разошлись. Ким отправился в Пхеньян, а президенты США и РК поехали в Сеул.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одержания лич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Кима и Трампа очевидно, что лидеры США и КНДР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достижении прорыва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настроены попытаться что-либо

сделать.

Неприятный эпизод произошел в кулуарах встречи главы Белого дом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Ёна. Об этом в своем Twitter сообщил Джим Акоста, известный американский журналист, обозреватель телеканала CNN, освещающий работу Белого дома. По его словам, новый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тефани Гришэм поссорилась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когда речь зашла о том,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лучшие места для съемок рядом с Трампом и Кимом. "Гришэм получила ушиб. Источник назвал это "всеобщей дракой", - сообщил Акоста. Информация не получила свое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из 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ов, но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ется в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цсетях. По информации Associated Press, инцидент с Гришэм, произошел во время дра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мериканских СМИ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хранников, когда последние блокировали доступ для репортеров из США к главам двух стран. Новый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которая недавно сменила в должности Сару Сандерс, якобы пыталась оказ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охранников, чтобы помочь членам пресс-службы Белого дома занять лучшую позицию и снять рукопожатие двух лидеров.

Пока неясно, потребовалась ли Гришэм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и пострадал ли кто-нибудь еще в ходе инцидента. 42-летняя Гришэм бы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ервой леди Мелании Трамп, 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была назнач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преемником Сары Сандерс.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Пробудить интерес к Корее через приобщение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С благородной миссией - приобщить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языку -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студентки же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ен'ин из г. Инчхо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течении пяти дней волонтеры провели курс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обучающихс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школах области и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коло 80 школьников, разбившись на 4 группы, познавали культуру и язык у носителей языка через К-поп и дорамы, а также попробовали повод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хоровод Канган-сулле, научились делать глубокие поклоны. Ребята также узнали, что весной лучше всего отдыхать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до, летом - в Пусане, осенью - в Сеуле, а зимой - в столице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18 - Пхёнчхане.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и умения, т.е. танцевать к-поп, говорить фразами героев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подбрасывать ногой деги (традиционный волан)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школьники смог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2 июля на сцен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де решили отметить окончание курсов заклю-



чительным концертом -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Несмотря на краткосрочность занятий, ребята успели сдружиться с девушками из коре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ногие обменялись контактами в надежде на встречу в будущем, возможно даже в Корее.

«За этот небольшой срок много всего интересного произошло. Мы подружились с девочкам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новыми людьми. И эти пять дней был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и и запоминающимися», -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ученик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Ю Дино.

Задачу,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волонтеры - приобщить к культуре Кореи через инте-



ресные занятия — была выполнена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было видно, с каким азартом и рв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ие ребята выступали на сцене.

Александра Федосова.
Фото: Ли Е Сик

사람을 찾습니다

<인적사항>

성함 : 안용덕
고향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나이 : 96세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산내리에 살고있는 안은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에게는 고모할머니 되시는 분이며 제가 한 번도 뵈 적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7년 전 할머니와 함께 이산가족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할린에 한 번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10년 넘게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다가 10년 전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희는 그때 고모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고모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남편분과 함께 러시아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고모할아버지(남편) 성함은 모르고 성이 ‘송’ 씨,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시북이 고향이십니다. 현재 고모부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모할머니만 살아계십니다. 고모할머니는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딸이 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7년 전 사할린에 방문했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딸 대신 고모할머니의 사위분이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사할린을 소개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옛날에 탄 광 전기공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들분들도 나이가 70세가 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고모할머니께서 한글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대필로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편지를 보내면 읽어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편지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고모할머니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것을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쯤 러시아에서 고모할머니의 손녀딸이라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어

는 통하지 않고 러시아어만 할 줄 알며, 20살, 13살 아들 2명과 같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손녀딸 되는 분이 고모할머니와 통화 연결을 해서 할아버지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 혼자 집에 계시고 통역을 해주실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 주소도 묻지 못하고 연락처도 모른 채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할아버지께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누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원망하시면서 계십니다. 어렸을 때 꼭 다시 만나서 같이 살자고 했던 약속이 마음에 계속 걸린다고 하시면서 며칠을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고모할머니를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할린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사할린에 계신 한국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고향이 경북 의성군인 안용덕 할머니를 아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81-10-5758-6407
이메일 ahneunjin2090@gmail.com
카카오톡 : aneunjin2090
고모할머니 사진은 없지만 저희 할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희망에 할아버지 사진을 같이 첨부합니다.
안용덕 할머니 소식을 아시는 분은 새고려신문사에도 연락하실 있습니다.
☎ 43-67-85, 43-59-80.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США, Канады,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Франции, Новой Зеландии, Казахстана, Финляндии, Германии, Япо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В ходе конференции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определили новые пути и возможности в сохранении и развитии языков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Арктики,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итогам конферен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издан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рецензированного сборника (РИНЦ),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노래방 경연 참가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들을 초대
<문화의 중심지>기획의 일환으로 2달간 매주 수요일, 역전 광장 분수대 옆 소공원의 즉흥 공연장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우수 예술단들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나제즈다>민요 앙상블, <월랴>카자흐민요 앙상블, <페레크레스토크>록그룹, <루스키 테렘> 현대민요 앙상블, <디에즈> 음악쇼, <모둘라치야> 극장쇼단 기타 등등, 예술인들이 출연한다.
7월 4일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이 공연장에서 연제, 어디서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창작하고 노래하는 시민들을 위해 <노래방 온라인> 특별 경연을 펼친다. 노래방 경연은 18시에 열리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곳에 와서 신청하고 참가해야 한다. 신청은 행사 진행일 17시부터 받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문화의 중심지> 기획 행사 공고와 실체프로그램은 <로지나> 문화회관 공식 사이트에 공지되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араоке-битвах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каждую среду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на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ой концертной площадке в центральном сквере у фонтанов на привокзальной площади будут выступать лучшие коллекти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родный во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Надежда",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казачьей песни "Воля", рок-группа "Перекресток", ансамбль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музыкальный шоу-проект "Diez", эстрадный театр-студия "Модуляция"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артисты подарят свои выступления.
А по четвергам начиная с 4 июля на этой же площадке ждут всех, кто не может жить без музыки — поет всегда и везде. Для творческих и голосистых горожан специальный конкурс "Караоке онлайн". Начало караоке-битв — в 18:00.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нужно лишь прийти и заявить о своем желании выступить.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этот же день по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с 17:00.,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Акту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и анонсы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сайте ДК "Родина".
검도 수업에 사할린의 청소년들 초대
검도 사할린주 스포츠 예비선발팀 센터가 차후 입적을 위한 검도 예비 기초 스포츠와 일반 기초과정에 11세-15세 청소년들을 선발한다고 알렸다.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행사는 <2015-2020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 지역의 체육 문화와 스포츠 발전> 지방 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문의 전화8-914-755-22-36 (WhatsApp). 사진 신청서는 메일 sakhalinkendoclub@gmail.com로 보내야 한다고 사할린주 검도연합회가 전했다.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занятия кендо
Центр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кендо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11-15 лет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общей начальной и начальной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о кендо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зачисления в резерв сборных команд.
Об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2015-2020 годы".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914-755-22-36 (WhatsApp).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заявки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лять на почту: sakhalinkendoclub@gmail.com,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ендо.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우리말로 깨닫다]

언어의 치유

인간에게 바벨탑은 저주인가요? 바벨탑은 저주가 아니라 신의 벌이겠지요. 그런데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진 사건을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공부에 골머리를 썩는 분들은 더 저주라고 느껴질 겁니다. 수험생에게 외국어는 점수에 불과하고 단지 몇 점을 맞느냐가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외국어가 없고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벌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은 벌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어가 갈라진 것은 벌이기도 하면서 축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외국어를 배울까요? 왜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다양할까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언어가 갈라지고, 달라진 것을 저주처럼 여기고 언어를 배우는 길 지옥 길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달라서 재미있듯이 언어도 달라서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 서로 달라서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모두 같다면 이 세상을 살 이유조차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겠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언어는 수많은 삶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 기쁘게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언어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우고 싶은 언어, 삶,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목표 의식을 버리고 행복하게 언어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에 약간의 시간을 언어를 배우는 데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새로움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30분 정도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강박 관념 속에 하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른 공부를 하기 전에 일본어책을 펴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문법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책을 주로 읽습니다. 최근에는 제 스승이신 서정범 선생님이 일본에서 출판하신 책을 읽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선생님의 책 두 권을 읽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원류를 거슬러 오르다’ 라는 책과 ‘한국어로 해석한 고사기(古事記)’ 라는 책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책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생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넵니다. 선생님께 예전에 들은 강의와 같은 내용이 반갑게 나타나서 행복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새 행복에 젖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에스페란토를 배웁니다. 에스페란토는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이유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에스페란토에서 희망과 치유를 만납니다. 차별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 서로가 평화를 지키려고 맹세하는 세상, 서로가 사랑하는 희망세상을 언어를 통해서 만납니다. 모국어와 함께 모두 공통적으로 아는 언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은 점을 느끼게 합니다.
언어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들려줍니다. 저는 영어나 일본어를 배우면서 수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 언어에 한 세상이 담겨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에스페란토를 공부하면서 언어에 담긴 정신을 배웁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배웁니다. 언어가 삶의 치유이기 바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나기 바랍니다. 새로운 언어를 위하여 기쁘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수록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다른 것을 잊고 그 시간은 오롯이 언어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꼭 실용적인 언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틴어나 히브리어, 희랍어, 한문을 공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필요해서 하는 공부 아니어서인지 오히려 행복감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드라마 명장면, k-pop 춤, 큰절과 제기차기 등으로 이어진 발표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할린을 방문한 경인여자대학교(한국 인천) 해외봉사단(학생 20명, 지도교수 2명)이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에서 약 80명의 사할린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 한국관광명소, K-pop, K-drama 총 4개 프로그램을 5일간 펼쳤다.

그동안 4개 그룹으로 나뉜 중등부(2그룹)와 고등부(2그룹)가 열심히 수업을 다니며 원어민 대학생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잘 익혀 7월 2일 진행된 발표회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영상을 통해 강강술래와 전통 결혼식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인기 드라마를 보면서 명장면의 대화도 익혔다. 그리고 k-pop 수업에서는 좋아하는 그룹들의 춤도 배워보고 이날 여러 걸그룹들의 춤을 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5일간의 수업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사할린 학생들과 젊은 강사들 간에 많이 친해져 학생들 중에는 헤어진다든 감정에 눈물까지 보였다. 이날 제기차기도 하고, 큰절도 올려보고, 수업영상도 보여주었다.

경인여자대학교 패션디자

인학과 박경빈(20세) 학생은 "저는 K-POP팀이었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잘 알려다구요. 한류가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와보니 실제로 그렇더라구요. 애들이 저희보다 관심이 더 많았고, 잘 따라왔고, 가르치기가 수월해서 저희도 재미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9학년생 유진오 학생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서로 알게 되었고 한국 여학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라며 소감을 나누었다.

짧지만 5일간의 수업은 사할린 학생들한테는 한국어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한국,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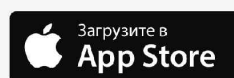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Платформа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йт (ссылка) Бя В.И.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